141 Years of CHEJUNGWON 1885-2026 제중원 141 주년

창간
1981년 9월 14일

연세의료원소식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NEWS

제995호
2026년 11월 9일

발행인 금기창 편집인 윤영남 T 02.2228.1074~5 F 02.2227.7783 severance@yuhs.ac

세브란스병원, 뉴스위크 선정 'AI 혁신 리더'

AI 도입해 병원 혁신 이끌어
디지털 의료 경쟁력 인정

세브란스병원이 AI 기반 디지털 의료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는 'AI 혁신 리더(Leader in AI Innovation)'로 세브란스병원을 선정했다.

뉴스위크는 글로벌 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와 함께 '2027 세계 최고 스마트병원(World's Best Smart Hospitals 2027)' 평가에서 올해 AI 혁신 리더 부문을 신설했다. AI 혁신 리더는 AI 기술을 의료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진료와 병원 운영에 활용하며, 혁신을 이끌고 있는 병원을 일컫는다.

세브란스병원은 2027 세계 최고 스마트병원(World's Best Smart Hospitals 2027) 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병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 세계 33개국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 전문가 동료 추천(67.5%) ▲AI·로보틱스·원격의료 등 도입 수준을 평가하는 디지털 성숙도 설문조사(30%) ▲디지털 보건의료 인증 보유 여부(2.5%) 등을 종합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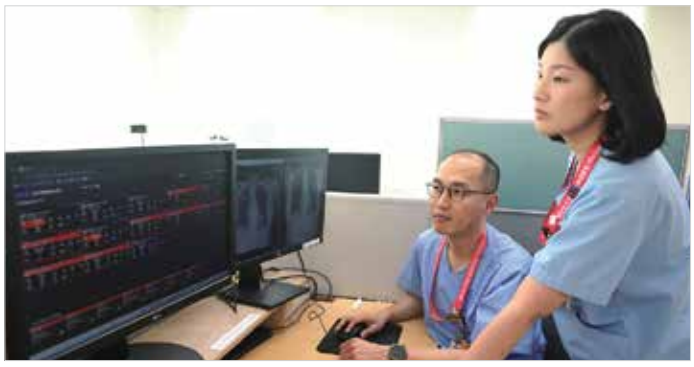
세브란스병원은 '넥스트 세브란스(Next Severance)' 전략을 바탕으로 병상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 환자 이슈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진료 현장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왔다.

병동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SeVue가 대표적이다. SeVue는 환자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상태 변화 징후를 의료진에게 알려준다. 전자의무기록(EMR)과도 연동돼 의료진 환자 관리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지원한다.

췌장암 환자 간 전이 위험을 예측하는 AI 모델 LiMPC도 개발했다. 췌장암 간 전이는 초기 CT·MRI 검사에서 발견하기 힘들어 수술이나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LiMPC는 별도의 추가 검사 없이 혈액검사 수치와 나이, 성별 등 전자의무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21개 변수를 이용해 영상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간 전이 위험을 예측한다. 국내 여러 의료기관 데이터를 활용한 검증에서 80% 이상의 예측 정확도를 기록했다.

세브란스병원은 디지털 기술을 임상 현장에 도입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2005년 국내 최초로 로봇수술을 도입한 이후 수술 표준화와 의료진 자격 인증, 단계별 교육·평가 체계를 구축했으며, 올해 단일 의료기관으로는 세계 최초로 로봇수술 5만례를 달성했다. 이 과정에서 축적한 임상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진료 혁신을 확대하고 있다.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은 "이번 결과는 의료진을 비롯한 전 교직원이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꾸준히 임상 현장에 도입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의료진 업무를 효율화하고 환자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영년 교수, 분쉬의학상 본상 수상

간암 조기진단 기준 확립
국제 간암 진단 표준 정립



의대 박영년 교수(병리학)가 지난달 27일 플렌티컨벤션에서 제36회 분쉬의학상 본상을 수상했다.

박영년 교수는 30여 년간 간암 조기진단과 발생·진행 기전, 치료반응 예측을 연구하며 간암 병리 분야 발전을 이끌어왔다. 특히 조기 간세포암 진단 기준을 정립하고, 환자 예후와 치료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병리학적 지표를 발굴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교수는 간경변에서 간암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분석해 조기 간세포암 특징을 규명하고, 정밀한 병리 진단 기준과 진단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초기 단계 간암을 보다 정확하게 구분하고 진단하는 데 기여했다.

간암 진행과 치료반응을 예측하는 연구도 진행했다. 박 교수는 종양을 둘러싼 혈관 구조인 VETC(Vessels Encapsulating Tumor Clusters)가 간세포암의 공격적인 성향과 불량한 예후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항암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규명했다.

또 암 줄기세포 특성을 나타내는 케라틴19가 많이 발현된 간암일수록 침습성이 높고 예후가 좋지 않으며 치료 저항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암세포와 주변 섬유아세포·면역세포 간 상호작용도 분석해 간암이 성장하고 진행하는 원리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영상검사와 병리학적 특징 사이 연관성을 밝힌 연구를 통해, 조직검사뿐 아니라 영상 소견을 활용해 간암 특성과 진행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환자별 특성을 고려한 정밀 진단과 맞춤형 치료 전략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박 교수는 간암 병리 기준 정립에도 기여해 왔다. 세계보건기구 소화기계 종양 분류(WHO Classification of Digestive System Tumours) 전문 편집위원을 역임했고, 국제적인 간병리 교과서 공동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또 대한간암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아시아·태평양 간암 학술대회(APPLE) 서울 개최를 이끄는 등 국내외 학술 교류와 공동연구를 주도했다. 후학 양성과 국제 다기관 연구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며 국내 간암 연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대한의학회가 주관하고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후원하는 분쉬의학상은 조선 고종의 주치의이자 국내 최초 독일인 의사인 리하르트 분쉬(Richard Wunsch) 박사 이름을 딴 상이다. 한국 의학계 학술 발전과 한·독 의학 교류를 위해 1990년 제정됐으며, 뛰어난 연구 업적으로 국내 의학 발전에 기여한 의학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대표 의학상 중 하나다.

의료원-하나증권 유산기부 문화 확산 나선다

유언대용신탁으로 자산 관리
생전 뜻에 따라 자산 이동
체계적 유산 기부 환경 조성



의료원이 하나증권과 손잡고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유산기부 활성화와 건강한 기부문화 확산에 나선다.

의료원은 지난달 22일 의료원장실에서 하나증권과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유산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자 뜻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언대용신탁은 본인이 생전에 금융회사와 신탁계약을 맺어 자산을 관리하고, 사망 후에는 미리 정한 방식에 따라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활용하면 기부자가 생전에 기부 대상과 방법 등을 설계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의료원은 기부금이 의료 발전과 환자 지원 등 기부자 뜻에 맞는 목적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산기부 문화 확산에 나선다. 하나증권은 기부자 상황과 의사를 반영한 맞춤형 기부 신탁 설계와 세무·법률 전문 상담을 지원한다. 하나증권 고객뿐 아니라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의료원에 기부를 희망하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유산기부는 나눔 가치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소중한 실천"이라며 "하나증권과의 협력을 통해 기부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유산기부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의료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건강한 기부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북권 권역응급의료센터 본격 가동

〈관련기사 2면〉

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북권 중증응급의료 거점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받아
중증응급·재난대응 핵심 역할



세브란스병원이 2일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식을 갖고 서울 서북권 중증응급의료 거점으로서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세브란스병원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를 거쳐 서울 서북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신규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2029년 10월 31일까지 3년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 실적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응급실을 찾은 중증환자에게 필요한 수술·시술까지 제공하는 최종치료 역량과 119·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 분담률, 중증소아 환자 안정화 치료 실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진료권역 내 중증응급환자 전문치료와 재난의료 대응을 담당하는 핵심 응급의료기관이다. 심정지,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초기 응급처치부터 수술·시술, 입원 및 중환자 치료까지 연속적인 진료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복합 응급환자 최종치료를 담당하고, 권역 내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훈련, 재난의료 대응 등 지역 응급의료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심정지와 심뇌혈관질환, 중증감염 및 호흡부전 등 긴급한 전문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응급진료센터에서 초기 진료 이후 전문적인 시술·수술과 심정지 후 집중치료, 중환자 치료로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진료과 간 협력과 병원 내 진료 연계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치료 지연을 최소화하고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 체계도 강화한다. 119 및 지역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환자 중증도와 치료 필요성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전원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대형 재난이나 다수 사상자 발생 시에도 서울 서북권 재난의료 대응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중심으로 소방·경찰·보건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난 현장 응급처치부터 환자 이송 및 병원 내 치료에 이르는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 응급의료기관 및 119구급대와 교육·훈련,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할 계획이다.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창립 113주년 심포지엄 성료

소아청소년과학교실로 개명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비전 제시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이 지난달 25일 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교실 창립 113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소아과학교실'의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개명을 기념하고, 영유아와 소아뿐 아니라 청소년기까지 연속성 있는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소아청소년과의 새로운 역할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아청소년과학교실은 1913년 우리나라 최초 소아의학 전문기관으로 출발하며 113년 동안 소아청소년 진료와 연구, 교육을 선도해 왔다. 이번 교실 명칭 변경은 출생부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로 이어지는 성장 전주기를 보다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심포지엄은 '청소년 건강, 소아청소년과의 새로운 역할과 도전'을 주제로, 급격한 신체·정서적 성장과 함께 다양한 건강 문제가 나타나지만 소아진료와 성인진료 사이 의료공백을 겪고 있는 청소년기 건강에 대해 다뤘다.

이날 ▲청소년기 의료적 공백과 소아청소년과 역할 ▲사춘기 발달과 최신 예방접종 등 필수 건강관리 ▲학교 검진 및 일차 진료에서 놓치기 쉬운 주요 질환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 환자의 성인 의료체계로 안전한 이행(transition of care) 등 실제 진료 현장에서 중요한 주제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교실 구성원과 소아청소년 진료 및 연구에 참여하는 의료진들은 심포지엄을 통해 청소년 건강관리 중요성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질병 양상 속에서 소아청소년과가 담당해야 할 새로운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영목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주임교수는 "이번 개명은 소아청소년과가 영유아와 어린이뿐 아니라 청소년 건강까지 책임지고, 성인기로 건강한 이행을 지원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지난 113년 전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아이들과 청소년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학문적 요람으로서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학교실은 이번 창립 113주년 심포지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소아에서 청소년, 성인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미래 소아청소년 의료를 선도하기 위한 진료·연구·교육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연세암병원, 발전세미나 개최…진료 경쟁력·환자 만족도 강화

진료활성화 등 경영 진단
진료 · 운영 개선방안 논의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사회적 신뢰 회복 전략 특강도



연세암병원이 지난달 28일 서암강당에서 진료 활성화와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실행전략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2026년도 연세암병원 발전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연세암병원 경영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부서별 주요 현안을 점검해 진료 경쟁력 강화와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혜련 연세암병원 기획관리실장의 '연세암병원 경영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로 시작된 세미나 1부에서는 부서별 진료 활성화와 업무 개선을 주제로 주요 현안과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방사선종양학팀은 중입자치료센터 운영 현황과 신규 환자 유치 계획을 발표했다. 첨단 암 치료 역량을 기반으로 중입자치료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외래간호팀은 제2외래항암약물치료센터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증가하는 외래 항암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입원간호팀은 입원 환자 VOC를 분석하고 환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특수간호팀은 COR 수술 건수 회복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각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부서별 현안을 공유하고 진료와 운영 과정에서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2부에서는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가 '변화된 의료환경과 신뢰 회복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 기자는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 의료기관이 직면한 과제를 짚고, 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세암병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입자치료센터와 외래 항암치료 등 주요 진료 분야의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입원환자 만족도 향상, 수술 실적 회복 등 부서별 핵심 과제를 점검했다. 앞으로도 부서별 실행과제를 구체화해 진료 경쟁력과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치대 교원, 세계 상위 2% 연구자 10명 등재

치과대학이 스탠퍼드대와 엘스비어가 발표한 세계 상위 2% 연구자 명단에 교원 10명을 올리며 국제적인 연구 경쟁력을 보여줬다.

스탠퍼드대 연구팀과 글로벌 학술출판사 엘스비어가 공개한 '표준화된 인용 지표를 활용한 전 세계 과학자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연구 영향력을 평가하는 단일 연도 기준 치대 교수 10명이 세계 상위 2% 연구자에 선정됐다. 지난해 8명에서 2명이 추가됐다.

김희진(구강생물학), 김종은(보철과학), 최성환·이기준·최윤정·차정열(교정과학), 권재성(치과생체재료공학), 김의성(보존과학), 이중석(치주과학), 강정현 BK21 창의치의학융합 교육연구단 교수로, 이 가운데 4명은 세부 연구 분야에서 상위 1% 이내에 들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Scopus 저자 프로필을 기반으로 인용 횟수, h-지수, 공동저자와 저자 위치 등을 반영한 종합지표와 분야별 백분위를 활용해 연구자 학술적 영향력을 평가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8월 1일 기준 Scopus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단일연도 지표에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피인용 실적이 반영됐다.

치대 교수진 연구 결과가 국제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인용되면서, 치대 학술적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다. 치대는 앞으로도 교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치의학 연구 국제적 위상을 높여갈 계획이다.

비인두암, CT·MRI로 예후 위험 더 정밀하게 구분

의대 서배선·김진아 교수(영상의학)가 비인두암 환자 CT·MRI 영상에서 확인되는 '림프절 외 침범'을 등급별로 구분하는 영상 판독 체계의 신뢰도와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영상의학(Radiology, IF 17.6)'에 게재됐다.

림프절 외 침범(extranodal extension)은 암세포가 림프절 피막을 넘어 주변 조직까지 침범한 상태로, 두경부암 환자의 불량한 예후와 관련된 주요 소견이다. 최근 개정된 비인두암 제9판 T(Tumor)N(Node)M(Metastasis) 병기 체계에서는 영상검사에서 주변 장기까지 침범한 진행성 림프절 외 침범을 림프절 전이가 많이 진행된 N3 병기 기준에 새롭게 포함했다.

국제 두경부 영상의학 공동 태스크포스는 영상에서 나타나는 림프절 외 침범을 0~3등급으로 구분하는 표준화 체계를 제안했다.

연구팀은 실제 적용 가능성과 예후 예측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25년까지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받은 비인두암 환자 중 경부 림프절 전이가 확인된 401명을 분석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3명이 치료 전 CT 또는 MRI를 독립적으로 판독했다.

분석 결과, 판독자 간 등급 평가 일치도를 나타내는 급내상관계수(ICC)는 0.87, 같은 판독자 반복 평가 일치도를 나타내는 카파계수(κ)는 0.95로 높아 분류 체계 재현성을 확인했다.

또 림프절 외 침범이 가장 심한 3등급 환자 사망 위험은 침범이 없는 0등급 환자보다 3.3배 높아 새로운 병기 체계에 포함된 결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원격전이 위험도


서 배 선


김 진 아

0등급에 비해 1등급이 2.33배, 2등급은 2.11배, 3등급은 2.39배 높아 N3 병기 기준에 포함된 3등급뿐 아니라 1·2등급도 환자 위험도 평가에서 유효했다.

치료 전 PET, 소세포폐암에서 예방적 뇌방사선치료 효과 예측


김 혜 련


홍 민 희


김 창 곤


조 응 혁


김 경 환


이 태 준

의대 김혜련·홍민희·김창곤(내과학), 조응혁(핵의학), 김경환(방사선종양학) 교수, 이태준 학생 연구팀은 치료 전 PET 검사에서 측정한 대사종양부피(MTV)를 이용해 제한병기 소세포폐암 환자의 예방적 전뇌방사선조사(PCI) 치료 혜택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전미 종합 암 네트워크 저널(Journal of the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JNCCN, IF 17.5)'에 게재됐다.

최근 제한병기 소세포폐암 환자에서 뇌 MRI를 이용해 전이 여부를 추적관찰 하는데, 예방적으로 전뇌방사선조사를 시행한다. 하지만 어떤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팀은 PET 검사에서 종양이 포도당을 활발하게 소비하는 영역 부피를 나타내는 '대사종양부피'를 측정했다. 대사종양부피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나눠 예방적 전뇌방사선조사에 따른 치료 결과를 비교했다.

대사종양부피가 높은 환자에서 예방적 전뇌방사선조사 치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방적 전뇌방사선조사를 받은 환자는 받지 않은 환자보다 뇌에서 암이 진행할 위험이 73% 낮았다.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은 51%, 사망 위험은 44% 각각 감소했다. 반면 대사종양부피가 낮은 환자에서는 무진행생존기간과 전체생존기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사종양부피에 따른 환자 예후도 예방적 전뇌방사선조사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예방적 전뇌방사선조사를 받지 않은 환자 중 대사종양부피가 높은 환자는 낮은 환자보다 뇌에서 암이 진행할 위험이 5.62배 높았다.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은 2.35배, 사망 위험은 2.23배 높았다.

예방적 전뇌방사선조사를 받은 환자는 대사종양부피에 따른 예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정낭 일괄절제 로봇수술, 전립선암 잔존율 낮춰

의대 조강수·방성은 교수(강남 비뇨의학과)가 진행성 전립선암(pT3b) 환자를 대상으로 정낭 주위 조직 일괄절제술 우수성을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국제외과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IF 9)'에 게재됐다.

정낭 침범이 동반된 전립선암은 수술 후 재발 위험이 높은 진행성 암이다. 암세포가 정낭까지 침범한 pT3b 단계 환자는 암세포가 정낭 주변 조직까지 침범한 경우가 많아, 수술 후 절제면에 암세포가 남거나 재발 위험이 높다.

조강수 교수팀이 적용한 EB-SVE는 정낭만을 분리해 제거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정낭을 직접 잡거나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주변 지방·연부조직을 함께 절제하는 방법이다. 그동안 정낭 주변 조직을 포함한 일괄절제(En Bloc) 개념이 이론적으로 제시돼 왔으나, 유효성 검증이 부족했다.

연구팀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강수 교수에게 로봇 보조 근치적 전립선절제술(RARP)을 받은 전립선암 환자 중 pT3b 전립선암으로 확진된 66명을 분석했다. 수술 전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정낭 침범이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정낭 주위 조직 일괄절제술(EBB-SVE)을 적용했다. 반면, 정낭 침범 소견이 뚜렷하지 않은 환자군에는 기존의 전통적 절제술(C-SVE)을 시행해 두 그룹 을 비교했다.

일괄절제술(EBB-SVE) 그룹은 기존 절제술 그룹에 비해 정낭 주변 조직 실제 암 침범 비율이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정낭 주변 절제면 양성률은 단 1.8%에 불과해 기존 절제술 그룹(15.8%)보다 낮아졌다.

또한 림프절 전이가 없는 pT3b 환자 분석 결과, 정낭 주변 절제면 양성은 수술 후 전립선특이항원(PSA)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현상과 독립적인 연관성을 보였다. 이는 정낭 주변 조직을 충분히 절제한 일괄절제술이 미세 암세포 잔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조 강 수


방 성 은

간호대, 규희배 장학금 수여식

박사후연구원 3명 선정
미래 간호연구인재 육성 지원

간호대학은 4일 자유관에서 '2026 규희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 이규희 동문 뜻을 기리고, 배우자 배병준 회장 후원으로 성장한 간호연구자들 연구성과와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배병준 회장을 비롯해 간호대 교수진과 역대 장학금 수혜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2026년 하반기 규희배 박사후연구원 펠로우십 수혜자로는 전희정, 김효영, 심선영 연구원 3명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각각 6개월간 총 2400만 원의 연구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장학증서와 감사패 전달, 역대 수혜자 감사인사에 이어 박사후연구원 연구성과 및 연구계획 발표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오찬과 교류 시간을 통해 후원 의미를 되새겼다.

배병준 회장은 "간호 핵심 가치는 '연민과 공감(Compassion)'에 있다"며 "연세간호가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연구 발전과 인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연구자를 배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치대, 2026 원내생 임상증례 발표회 개최

치과대학은 지난달 23일 1층 로비와 치대병원 7층 강당에서 '2026 원내생 임상증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본과 3·4학년 과정에서 치대병원 원내생으로 직접 진단하고 치료한 환자 임상 증례를 공유하고 임상실습 경험과 학습 성과를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치대 로비에서 열린 포스터 발표에는 본과 4학년 학생 54명 전원이 참여해 각자의 임상 증례를 발표했다. 치대 교원과 임상지도교수 심사를 거쳐 17명이 우수 포스터 발표자로 선정됐다.

치대병원 강당에서는 사전 선정된 우수 발표자 5명의 구연 발표가 진행됐다. 학생들은 근관치료, 복합레진 수복, 부분무치악 환자 보철치료 등 치료 과정을 소개했다.



구연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과 교수진 논평을 통해 각 증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과 학술적 논의가 이어졌다. 이후 학장 격려사와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본과 4학년 학생 전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우수 포스터 발표자 17명과 구연 발표자 5명에게는 각각 우수 포스터 발표상과 우수 구연 발표상을 수여했다. 학생 임상지도교수들에게도 감사장을 전달했다.

의료기관 간 산전관리 진료연계체계 구축

위험도 · 임신시기 따라 진료
산전진료 프로토콜 마련

세브란스병원이 지역 산부인과와 손잡고 임산부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산전관리를 받으면서 고위험 임신이 확인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속하게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연계체계를 구축했다.

의대 권자영·정윤지·권하얀 교수(산부인과학)팀은 상급종합병원과 1차 의료기관이 임산부 위험도와 임신 시기에 따라 진료를 분담하는 의료기관 간 산전관리 진료연계체계 통합 플랫폼 '세브란스 OB 그룹(Severance OB Group)'을 개발했다.

이번 연계 플랫폼에는 서울·경기·인천 지역 9개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2차 의료기관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산전진료를 체계화하고자 임신 주수별 표준 산전진료 프로토콜도 마련했다. 일반적인 산전검진은 협력의원에서 시행하고 세브란스병원은 태아 기형을 확인하는 정밀초음파, 출산 전 분만 방법 상담 등 전문진료를 담당한다. 출산 후에는 다시 협력의원으로 환자를 회송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협력의원 의료진이 환자와 상급종합병원 사이에서 직접 예약을 중개해야 해 예약이 늦어지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협력의원이 진료를 한 번 의뢰하면 진료협력센터가 환자에게 직접 연락해 예약을 진행한다. 환자 위험도에 따라 협력의원이 진료 시점을 조정할 수도 있어 중증 임산부 진료 지연을 줄였다. 특히 태아 기형, 자궁 내 태아성장지연 등 고위험 임산부는 신속하게 세브란스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패스트트랙(Fast-track)'을 구축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지역 산부인과가 진료의뢰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세브란스 간편 진료의뢰' 모바일 앱도 개발했다.

지금까지는 환자 진료정보 제공 동의를 받기 위한 의사·환자 서명 절차가 복잡하고 진료기록을 첨부하는 과정에도 불편함이 있었다. 새 앱에서는 의료진과 환자가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 전자서명을 하고, 진료의뢰서와 검사 결과 등을 간편하게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질향상 및 환자안전 전문가 CUSP 워크숍



세브란스병원이 지난달 26일 서암강당에서 '2026년 질향상 및 환자안전 전문가 CUSP 워크숍'을 개최했다.

질향상 및 환자안전 전문가는 CUSP(Comprehensive Unit-based Safety Program) 개념에 기초해 실무 현장에서 환자안전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문제를 파악해 개선활동을 주도하며 환자안전 문화 확산을 이끄는 실천 전문가이다. 지난해 10월 발대식 이후 27명 전문가가 각 팀을 대표해 활동하며 다양한 환자안전 개선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워크숍은 1년간 현장에서 수행된 CUSP 개선활동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CUSP 전문가 및 부서장들이 참석했으며 환자안전 최신 동향과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한 데 이어 현장 중심 개선활동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환자안전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용인, BEYOND 심포지엄 성료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난달 31일 병원 4층 대강당에서 퇴행성뇌질환센터 주관으로 '2026 BEYOND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약물치료를 넘어: 퇴행성 뇌질환에서의 인지와 보행'을 주제로,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비약물적 치료 전략과 특발성 정상압수두증 진단과 치료에 관한 최신 연구 성과와 임상 경험을 공유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환자 인지 및 운동 기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치료적 접근을 다뤘다. 인지저하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인지중재 임상적 근거를 살펴보고, 경두개 직류전기자극을 활용한 신경조절 치료 가능성을 논의했다. 또 파킨슨병 환자 운동 기능과 일상생활 능력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신체운동 역할을 조명하며 약물치료를 보완할 수 있는 비약물적 치료 전략을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특발성 정상압수두증 발생과 진행 과정부터 진단, 치료까지 다학제적 접근을 논의했다. 일본 야마가타현립보건과학대 치후미 이세키(Chifumi Iseki) 교수가 지역사회 기반 장기 추적 연구를 토대로 질환에 대한 최신지견을 공유했으며, 센서를 활용한 객관적 보행 평가와 다양한 수술적 치료 전략을 살펴보며 환자별 치료 접근법을 모색했다.

세브란스병원 간호국, 관리자 워크숍 개최



세브란스병원 간호국은 지난달 15일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2026년 간호국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수립한 '2030 비전 전략' 추진 경과와 성과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세브란스 간호의 핵심 전략과 실행 방향이 공유됐다.

이날 병동, 외래, 중환자, 응급, 수술, 진료지원, 간호관리·교육·연구 등 7개 분야 2030 비전 전략 추진 경과와 주요 성과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신혜경 간호부원장은 'Next Severance Nursing: 간호국 6대 핵심 전략'을 발표하며 세브란스 간호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과 실행 방향을 제시했다.

워크숍은 세브란스 간호가 축적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전략을 구체화하고, 간호관리자들이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2030 비전 실현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어 전원경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가 '변화의 시대, 새로운 시선: 인상파에서 AI까지' 특강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예술과 시대 변화 흐름을 통해 기존 관점을 확장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과 통찰을 나눴다.

용인, 두센근이영양증 환자 가족 초청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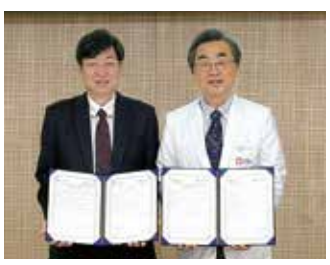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라마다용인호텔에서 두센근이영양증(DMD) 환자 가족 초청행사 '우리, 함께 걸어요!'를 개최했다.

희귀질환인 두센근이영양증을 앓는 환아와 그 가족이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행사는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이날 29명의 환아 가족과 교직원, 자원봉사자 등 총 42명이 참가한 가운데 첫날 오리엔테이션과 만남을 가진 뒤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부모들은 의대 김희연 교수(용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아동 발달에 따른 병에 대한 이해' 강연, 의대 이하늘 교수(용인 소아청소년과) 질의응답 및 부모 간담회에, 환아들은 미술 교실 프로그램에 각각 참여했다. 이튿날 참가자들은 행사장 인근 놀이공원에서 가족 나들이를 즐기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용인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봉사팀, 메이크어위시재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동참해 프로그램 구성과 행사 진행에 힘을 보탰으며, 필요한 재원은 희귀 난치질환 아동 후원을 위해 지구촌교회와 심플리홈에서 기부한 '용인세브란스병원 너른 품 사회공헌 기금'으로 마련했다.

치대병원, 아동·청소년 치과진료 지원 확대



치과대학병원은 지난달 19일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에서 장애 및 비장애 아동·청소년 구강건강 증진과 전문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원서 연세대 치대병원장과 전국진 부원장, 남민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과 김주연 치과과장, 박진수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전신마취가 필요하거나 중증·고난도 치과치료가 요구되는 아동·청소년에게 원활한 전문 진료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 치과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는 1000만원을 후원해 아동·청소년 환자 1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치과진료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환자에게는 기존 비급여 진료비 감면제도도 우선 적용해 환자와 보호자 경제적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은 전문 치과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선정해 치대병원에 의뢰하고, 치대병원은 환자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진료와 예약을 연계한다. 소아치과와 통합치의학과 등 관련 진료과도 협력해 환자 중심 전문 진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남, '환자경험 향상의 날' 행사 개최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지난달 19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환자경험 향상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입원 중 경험한 의료서비스 수준과 병원 환경, 환자 존중·소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환자경험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평가주기가 2년에서 1년(매년)으로 바뀌며 병원들이 환자경험 향상을 상시 관리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환자 중심 의료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환자경험 향상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병원 2동 3층 로비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환자경험평가 소개 안내판 전시를 비롯해 관련 퀴즈 이벤트, 나의 다짐 엽서 작성, 무료 포토부스 등 교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대강당에서는 교직원 환자경험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특강이 진행됐다.

한편, 행사 부스에서는 8월부터 강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자경험 향상 영상(쇼츠) 공모전' 수상작을 상영했다. 각 부서에서 환자를 위해 실천하고 있는 구체적인 활동과 노력을 주제로 위로와 공감, 존중과 예의, 경청, 쉬운 설명 등 핵심 키워드를 60초 내외 짧은 영상으로 담았다. 최근 대강당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75병동 '우리의 연습, 환자의 안심이 되다'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강남, 역대 병원장 간담회 개최



병원 미래 발전 방향 새병원 건립 의견 나눠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지난달 20일 서울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역대 병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훈상, 김광문, 박희완, 조우현, 이병석, 김근수, 송영구, 구성욱 전 병원장 등 역대 병원장 8명과 김용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역대 병원장들에게 병원 주요 경영현황과 새병원 건립 추진 계획 등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권인규 기획부실장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김용욱 병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조강수 기획관리실장 경영현황 보고, 김용욱 병원장의 새병원 건립계획 설명, 역대 병원장들과 질의응답 등 순으로 이어졌다.

조강수 기획관리실장은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최근 주요 경영실적 등을 설명했다. 특히 중증질환 중심 진료체계 강화, 암 신환 패스트트랙 시범 운영, 로봇수술 및 MRI 인프라 확충 등 병원 주요 사업과 발전기금 모금 성과를 공유했다.

김용욱 병원장은 새병원 건립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병원이 추진 중인 다양한 새병원 건립 구상안과 함께 주차공간 확충, 병원 환경개선 계획 등을 설명했다. 또한 진료공간 확대와 중증질환 중심 의료기능 강화 등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참석한 역대 병원장들은 새병원역할과 기능, 진료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단순 시설 확장을 넘어 미래 의료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진료체계와 운영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욱 병원장은 새병원 설계 및 운영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간담회는 지훈상 전 병원장 건배사와 함께 만찬으로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병원 발전을 위한 노력을 되돌아보고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했다.

소아이식 가을캠프



세브란스병원이 지난달 24일 파주영상수련원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은 환아와 가족들을 위해 '2026 소아이식 가을캠프'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심장, 간 이식을 받은 환아 18명과 가족들이 참석했으며 의대 김명수, 인경 교수(외과학) 등 의료진과 사회사업팀이 참여했다.

이식 환아들은 같은 수술을 받은 또래를 만나 오감놀이, 운동회 등 다채로운 야외 활동을 즐겼다.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부모들은 의료진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자녀 질환 관리와 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나눴으며 이어진 어머니 집단 상담을 통해 아픈 환아를 양육하며 느꼈던 심리적 부담감을 공유하고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주고받았다.

한 참여 가족은 "이식수술 후 체육대회에 참가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아이가 이렇게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본 게 오랜만이라 더욱 뜻깊었다"며 "같은 어려움을 경험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김명수 교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아와 가족들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게시판』

의대 박윤길 교수(강남 재활의학과)가 지난달 23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열린 제54회 대한재활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8년부터 1년이다.

의대 정세한 교수(정형외과학)가 2026 대한정형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딥러닝 기반 무릎 퇴행성 관절염 위험과 관련된 한국인 연령대별·성별 하지 정렬 분석 연구를 발표해 SICOT '93 Seoul 학술본상을 수상했다.

의대 김성환·정세한 교수(정형외과학)가 같은 행사에서 근위 경골 절골술에 연골 재생술을 병행했을 때 추가적인 임상적 이득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를 발표해 대원 CiOS 학술상을 수상했다.

의대 이진우·한승환·박광환·심동우(정형외과학), **윤여권**(용인 정형외과) 교수는 만성 외측 발목 불안정성 환자를 5년 이상 추적 관찰하며 손상된 인대를 봉합하는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과 인대를 새로 만들어주는 외측 발목 인대 재건술 장기 치료 결과를 비교한 연구로 ISTA Seoul 학술상을 수상했다.

세브란스병원 입원간호팀 이서화 간호사가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48차 ESPEN(유럽임상영양대사학회)에서 2026 Travel Grant를 수상했다. 이 간호사는 응급실 경유 입원환자의 신체계측 자료를 활용해 체중 추정 및 초기 영양평가의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Travel Grant는 만 35세 미만의 제1저자 겸 발표자를 대상으로, 초록 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전 세계 30명(국가별 최대 1명)에게 주는 여행 지원금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방사선종양학팀 박인서 방사선사가 지난달 17일 개최된 대한방사선치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박인서 방사선사는 'MR 유도 방사선치료에서 온라인 적응치료 전략 선택을 위한 새로운 선량학적 기준(A Novel Dosimetric Criterion for Selecting Optimal Online Adaptation Strategies in MR-Guided Radiotherapy)'을 주제로 다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연구는 환자별 장기 및 종양 변화에 맞춘 최적의 온라인 적응치료 전략을 객관적으로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기존보다 빠른 실시간 대응 전략 임상 적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췌장암 치료법 공부하러 오세요"

17일 췌장담도암센터 공개강좌 수술부터 중입자치료까지

연세암병원 췌장담도암센터가 17일 췌장암의 날을 맞아 지하 3층 서암강당에서 공개강좌를 진행한다.

췌장담도암센터는 이날 췌장담도암에 대해 일반인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각 분야 교수진이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의대 김지훈 교수(내과학)가 '췌장암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나요? -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의대 홍승수 교수(외과학)가 '췌장암 수술, 누가 받을 수 있나요?'를 진행한다.

의대 김만득 교수(영상의학)는 '수술이 어려운 췌장암, 전기로 치료할 수 있을까?' 강의를 통해 비가역적 전기천공법(IRE)을 소개한다. IRE는 수술이 어려운 췌장암 환자에게 3000볼트 전기를 활용해 주변 장기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방법이다.

이어 의대 최서희 교수(방사선종양학)가 '췌장암 중입자치료란 무엇인가요?'를 통해 국내 유일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를 소개한다. 연세암병원은 고정형치료기 1대와 회전형치료기 2대를 운영하며 췌장암은 물론 전립선암, 간암, 폐암, 두경부암, 재발성 직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유일 중입자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의대 이충근 교수(내과학)는 '췌장암의 항암치료와 표적치료'에서 최신 항암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강의 후 강사로 나선 교수들이 환자와 보호자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순서도 마련돼 있다. 질문은 강연 참여 전 혹은 강연 중에 QR 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강좌는 사전 신청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3억원

소아청소년 환자치료비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이하 JYPE)가 최근 소아청소년 환자치료비 3억원을 후원했다. 이번 기부금은 신촌·강남·용인세브란스병원 국내외 만24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JYPE는 사회공헌활동 EDM(Every Dream Matters! :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 프로젝트 일환으로 2024년 의료원과 환자 지원 협약을 체결하며 첫 후원금 5억원을 전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총 10억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

김기웅 아이투비파트너스 대표 2억원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

김기웅 아이투비파트너스 대표가 최근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으로 2억원을 전했다.

김기웅 대표는 "연세의료원의 투명한 기부금 집행과 피드백이 기부를 지속하는 동력 중 하나"라며 "환자분들께서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후원금을 보낸다"고 전했다.

한편, 김기웅 대표는 2023년 후원을 시작으로 환자치료비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유대림 후원자 1억 700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연구 발전 후원금

유대림 후원자가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 연구 발전을 위해 약 1억 700만원 상당 해외주식을 기부했다.

유대림 후원자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세심한 진료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서 "연구 발전을 통해 앞으로 더욱 환자를 위하는 병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기부는 강남세브란스병원에 해외주식을 후원한 첫 사례다.

코스닥협회 4800만원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



코스닥협회가 최근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으로 4800만원을 후원했다.

의료원장실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코스닥협회 이동훈 회장, 안승근 상근부회장, 김준만 전무와 금기창 의료원장,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 윤영남 대외협력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동훈 회장은 "회원사들과 매년 진행하는 미소사랑후원금 일환으로 소아청소년 환자들을 위한 치료비를 모금했다"며 "아이들이 희망을 되찾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코스닥협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보내주고 계신 코스닥협회에 감사드린다"며 "소아청소년 환자들 치료와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1000~3000만원 기부

의과대학
- **구영석 연세우리내과의원 원장**(의대 94년 졸) 신장질환연구소 연구기부금 1000만원
- **김현욱 연세밝은내과의원 원장**(의대 99년 졸) 신장질환연구소 연구기부금 1000만원
- **류한작 연세백세내과의원 원장**(의대 01년 졸) 신장질환연구소 연구기부금 1000만원
- **임승철 유테라산부인과의원 원장**(의대 99년 졸) 산부인과학교실 발전기부금 1000만원
- **한재현 연세봄내과의원 원장**(의대 08년 졸) 신장질환연구소 연구기부금 1000만원
- **홍성범 연세안과의원 원장**(의대 88년 졸) 안과학교실 발전기부금 1000만원

치과대학
- **김영삼 강남레옹치과 대표원장** 예방치과학교실 발전기부금 1000만원

간호대학
- **간호대 김상희 교수** 발전기부금 1000만원

세브란스병원
- **임승철 유테라산부인과의원 원장**(의대 99년 졸) 산부인과 발전기부금-고위험 산모 태아 통합치료센터 1000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 **이명근 동문**(의대 83년 졸) 의료선교후원금 1000만원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기사로 전하지 못하는 기부 내용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정영심 미주동창 20만달러



간호대 장학기부금

정영심 미주동창(간호대 67년 졸)이 최근 간호대학 창립 120주년을 기념해 간호대학 장학기부금 20만달러(2억 9692만원)를 기부했다.

정영심 동문은 "후배들이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간호리더로 성장해 사회를 섬기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연세간호인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후원이 후배들의 학업과 성장에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영심 동문은 2017년부터 꾸준히 간호대 장학기부금을 후원해오고 있으며, 누적 기부금은 약 4억 7000만원에 달한다.

재단법인 청한장학회 2억원

의대 연구기부금



재단법인 청한장학회에서 의과대학 연구기부금(청한(창암))으로 2억원을 약정했다.

교수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 및 과제 선정식에는 청한장학회 이강섭 이사장과 금기창 의료원장, 최재영 의대학장, 지헌영 의대 연구부학장과 함께 연구과제 선정자 의대 이영인(피부과학), 홍태희(흉부외과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강섭 이사장은 "청한장학회에서는 장학금 지원 외에도 의학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다"며 "이번 후원금이 젊고 훌륭한 연구자들이 더욱 많이 배출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의대 연구 발전을 위해 뜻깊은 후원을 결심해주신 이강섭 이사장님과 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후원이 역량 있는 연구자들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그 성과가 미래 의학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허용수 GS에너지 부회장 5000만원



재활병원 장애인 의료재활후원금

허용수 GS에너지 부회장이 최근 재활병원 장애인의료재활후원금으로 5000만원을 기부했다.

허용수 대표는 "재활치료는 환자들이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신지철 교수님을 비롯해 환자들 회복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허용수 부회장 누적기부금은 2억원에 이르렀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부평교회 3000만원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

기독교대한감리회 부평교회(담임목사 손응석)가 최근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 3000만원을 기부했다.

사랑의 쌀 지원사업,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회사업을 운영하는 부평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원에 지속적인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부평교회 누적기부총액은 5억 1000만원을 넘어섰다.

김경호 의과대학 동문 3000만원

의대 정형외과학교실 발전기부금

김경호 동문(의대 95년 졸)이 최근 의대 정형외과학교실 발전기부금(임상)으로 3000만원을 후원했다.

김경호 동문은 "박시영 교수님을 비롯한 정형외과 모든 의료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후원이 교실 발전에 보탬이 되고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를 제공하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경호 동문은 2013년 후원을 시작으로 의대 피부과학교실 발전기부금, 의대 신축기부금 등 꾸준한 모교 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동문회 소식

'세브란스 동아리의 밤' 준비모임 개최

2027년 7월 3일 개최
동문·재학생·가족 축제로



의대 총동문회는 지난달 20일 '2027 세브란스 동아리의 밤' 개최를 위한 준비모임을 갖고 행사 일정과 기본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이재범 총동문회장을 비롯해 정재원 원주동창회장, 이용주 여동창회장 등 총동문회 관계자와 각 동아리 지도교수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동아리 활동과 특색을 소개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행사 개최일을 2027년 7월 3일로 확정하고, 동문뿐 아니라 재학생과 가족까지 함께 참여하는 열린 축제로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기존 격식 있는 동문 행사에서 벗어나 편안한 복장으로 참석해 학창 시절 추억을 되새기고, 선후배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친목을 다질 수 있는 행사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각 동아리 개성과 전통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해 세대를 넘어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사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총동문회는 앞으로 각 동아리 대표들과 긴밀히 협력해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동문과 재학생, 가족이 세브란스 추억과 전통을 함께 나누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2025.12.1-12.31)

1천만원 미만 기부건(재직 교직원 급여공제, CMS제외)

의료원(발전기부금)

강준영 곽현진 구자관 기부금 김경아,이은사,이만천 김대환 김소연 김영대 김영철
김진아 김진주 김태석 김현정 남의진 노주환 류선영 민채원 박경남 박민철 박정현 성실교회 송범교
수이57아뜰리에 신규호 신아영 신재용 유남순 유명석 이규래 이보문 이상미 이소영 이치혁 이혜정 전승희
정혜미 조성현 조우혁 최다연 최유진 최윤석 황지현

의과대학(발전기부금, 서클지원금, 신축기부금, 연구 및 연구소 기부금, 장학기부금)

감사합니다 강성석 강승하 강신혜 강용준 강종화 고윤우 곽현주 구철회 권세광 권오웅 권자영 김규태
김기용 김다희 김도담 김도현 김도훈 김동욱 김명진 김문아 김미라 김민유 김방현 김상곤 김상균 김선웅
김선희 김세완 김수옥 김순천 김승은 김어수 김영경 김영기 김우정 김우중 김원옥 김윤숙 김은경 김의현
김인성 김일영 김재민 김재원 김정한 김종진 김주희 김준식 김진영 김진형 김진호 김찬우 김철근 김철
김태종 김현곤 김현규 김현수 김현주 김형중 김혜진 김효진 김희연 나군호 나비푸드 나영무
난치성갑상선내분비암연구회 남궁삼준 노은비 류동열 민경협 박경혜 박병일 박복희 박선아 박성혁
박송강 박승림 박신혜 박영희 박윤아 박재민 박정옥 박정완 박정탁 박정호 박주현 박지인 박진석 박찬
박해승 박해심 박현정 박현민 박홍준 박희영 방동식 배병기 배창환 백경혜 백승 백승재 백승학 백현구
변지윤 부영준 서경률 서선미 서영주 서장현 서정남 소예경 손기동 손기혁 손석한 손은주 손홍석 송금순
신은아 신의진 신의철 신희진 심상수 안강현 안광진 안신기 안재은 안창수 안철민 양우익 양혁진 오병호
오승택 오정탁 오현희 우찬명 원종윤 위성호 유수미 유흥옥 윤세옥 윤수영 윤용노 이강석 이광현 이남선
이라현 이명생 이미경 이미선 이민정 이민희 이상민 이상학 이성숙 이순자 이승수 이승열 이연경 이영한
이원용 이유미 이이형 이장완 이장훈 이재정 이정석 이정준 이정표 이중희 이차영 이창일 이쾌우 이현숙
이혜리 이혜연 이환모 이회열 임길채 임성규 임시현 임준열 장병철 장상호 장성구 전동녘 전지홍 전태주
정동혁 정승원 정양기 정은지 정재욱 정현택 조남훈 조미영 조민정 조수경 조수현 조순이 조영재 조은미
조정우 조철호 조현욱 주진우 차경빈 채주연 천근아 천선희 최경섭 최성연 최승준 최승희 최원준 최정원
최정주 최중혁 최진식 최현정 하태은 한승경 한승환 한재욱 함석진 함익병 허진국 현순자 홍민기 홍사민
홍순기 홍주의 홍준호 홍창의 황성원 황진

치과대학(발전기부금, 장학기부금)

감사합니다 고용재 곽호철 권택신 김권수 김래규 김석중 김선영 김성오 김정태 김종태 김준현 김지은
김태환 김현수 김현철 김형순 김훈 노승오 류동현 모성서 문원규 박성희 박창범 백석기 서병인 서영섭
서우경 석근정 신승면 신유정 신형건 양성재 양순봉 연세치과의원 오경춘 우상엽 유준상 윤상일 윤홍철
은선현 은선희 이규호 이언강 이장열 이종석 임선아 장정호 전선규 정영수 정유진 정휘동 조항래 주선모
차신정 채문희 최도영 최승호 최원경 최준언 한상선 현석주 홍영우 황규용 황두연

간호대학(발전기부금, 장학기부금)

(재)케이티그룹희망나눔재단 고은숙 곽호철 김상희 김소연 남진정 신라장학문화재단 이경희 이정열 조원정

보건대학원, 융합보건의료대학원(발전기부금)

Addipa Adapoe Emmanuel Apuahe Elsie Baatar Solongo Bhatt Khem Raj Burenbaatar Buyanbadrakh Dewi Arinta Escobar Arevalo Dustin Arturo Hassan Khalid Joof Daba Jubin Dennis Kyuta Vides Abraham Marumatakimanu Mosiah Nukutau Mogrovejo Coronel Angie Patricia Munmun Farzana Taher Och Narmandakh Pascoela Belo Talo Maria Pham Thi Le Giang Pical Femmy Imelia Rabuhore Joselyne Sanchez Moron Luis Andres Sanduijav Undariya Shaharova Aylar Tamal Syed Shafiq 글로벌보건안보 2기 바수키 박현미 원소영 이희주 전경남 정우진 한순욱 한휘종

의학도서관(발전기부금) 정선재

세브란스병원(발전기부금, 사회사업후원금, 원목실 헌금 및 후원금)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주)뉴글로벌해운 (주)비즈마컴 YI CHONG CHUN 강민균 강연정 강윤15주년기부
금 강정아 강태영 고석곤 고재일 공동모금-원목실 공상목 공지영 곽호철 구본구 구본일 구영모 구철회
권영찬 권재윤 권정현 권지은 권혁원 김건헌 김건호 김규원 김다경 김란순 김리혜 김만석 김병삼 김병철
김상욱 김설아 김소연 김송희 김수진 김영곤 김영민 김용석 김용풍 김윤배 김윤홍 김은준 김정주 김정훈
김준균 김중훈 김태형 김태홍 김태훈 김현열 김현정 남문희 돈우회 맹승렬 모영미 문명덕 문석준 박민재
박병섭 박상현 박아영 박언정 박자연 박주환 박지성 박태욱 박형민 박혜원 박호신 박효준 반경민 배은별
배진환 배현정 백소이 백진우 백현우 분전아카데미 비야 비전광림교회 서태경 설창일 성애진 성웅용
성준제 손정화 송다영 송보미 송성광 송재진 신건관 신금식 신동복 신동희 신연우 신유희 신판식 심성광
안민기 안종순 안효동 양동익 양종근 언더우드 찬양단 엄지혜 연세MBA 골프국 버디버디 사랑나눔 연세장
로찬양단 염수아, 염준범, 조민정 오종원 오지선 우성진 우주영 우준석 우지윤 우채민 위건영 유광식
유소미 윤보라 윤은성 윤이나팬카페 윤종화 윤혜성 이건민 이동석 이라현 이상명 이상원 이수영 이슬기
이승규 이원균 이유경 이유림 이은혜 이재훈 이종열 이주연 이주희 이준혁 이지연 이지은 이지혜 이지훈
이진규 이진만 이진이, 김지아 이춘호 이택규 이현수 이홍철 임보미 임수정 임우영 임윤진 임은경 임태연
전선영 정경석 정다희 정도영 정서율 정유림 정일생 정재균 정종한 정태준 정효섭 조복임 조신제 조재선
조정환 조현우 종교교회 주혜린 주호중 지명선 최동욱 최민석 최서연 최석순 최송미 최영득 최예나
최우진 최지원 최지훈 최진호 최행준 최형철 탁건 한국소아암재단 한승희 한신그룹 한정섭 한지희
허진성 헤세드필라테스 홍예준 홍재문 홍정혁 황병규 황희경

강남세브란스병원(건축기부금, 발전기부금, 사회사업후원금, 연구발전기부금, 의료선교후원금)

(주)디컴스 (주)샌드빅서전 (주)이온인터내셔널 가지은 강남 원목실 강동헌 강명신 강선영 강성민
강윤주 강진숙 강판두 공선순 공재철 공형석 구성욱 구인숙 권두환 권순자 금종윤 김경석 김경식 김기숙
김다영 김대중 김도현 김동규 김동수 김동현 김라희 김만기 김명균 김명신 김미희 김민균 김병규 김병무
김보미 김상민 김성태 김수광 김수연 김양안 김양자 김영균 김영상 김영선 김영섭 김영준 김용구 김용기
김우람 김원배 김유안 김유정 김은희 김자영 김재환 김정석 김정혜 김종민 김종하 김주현 김준수 김지혜
김지환 김지훈 김진호 김찬용 김채원 김철원 김충진 김태연 김태훈 김혜경 김호영 김효동 김효숙 김희순
김희정 김희진 남기승 노동조 노영채 노원주 노태규 누흐바이테킨 선교사 대한예수교장로회기쁜소식교회
문순임 문영일 문은희 문지미 박경민 박다은 박명자 박명화 박문규 박새람 박선영 박소현 박수진 박아영
박유주 박윤선 박윤희 박은하 박종인 박준성 박진옥 박진희 박찬우 박채수 박태현 박해선 박희영 방명환
배기선 배승남 배재옥 빈지원 서정자 선진기전㈜ 성공제 손태경 송민선 송용배 신용원 신은혜 신인철
신지선 신형진 심재용 안정기 안철민 양갑규 양우선 양윤모 양정윤 엄소연 연규정 연세대학교 여자 동문회
선교위원회 염창환 오흥식 우동호 유나현 유영주 윤경희 윤재희 윤지영 윤지혜 이기련 이동순 이동진
이명자 이문기 이미화 이민우 이분화 이상훈 이서은 이성주 이성혜 이수천 이승헌 이시우 이애경 이양란
이여름 이영지 이옥순 이용식 이윤영 이은정 이장우 이정민 이종민 이창호 이철우 이충근 이태임 임성규
임성우 임충식 장미옥 장성구 장수빈 장재호 전대근 전수영 전용철 전하라 정가영 정광익 정대희 정명일
정지호 정철 정철오 조동희 조승현 조아라 조연진 조훈 조희정 주재열 진예림 진하준 채경아 천준영
최경태 최기욱 최성현 최소원 최수희 최승호 최승호, 최솔 최아룡 최윤영 최자영 최재남 최종혁 최준원
최홍식 최희원 클라리스파 하늘씨앗교회 하영란 한대훈 허수창 홍인경 홍정석 황성우 황인애 황혜진

용인세브란스병원(건축기부금, 발전기부금, 사회사업후원금, 원목실 목회기금)

(주)마케팅앤컴퍼니커뮤니케이션즈강남 곽세현 구나희주 구지현 기수진 김광연 김도연 김동욱 김선용
김예은 김태양 김푸름 김혜린 김화영 김효진 박경미 박계월 박근애 박보영 박재라 백승희 분당지구촌교회
비룡전자(주) 서현주 성숙희 손은진 신현주 아현중앙교회 안경찬 안수민 안연옥 염호영 용인시보호작업장
용인주일예배한금 유은정 유주영 유하경 은빈 이고운 이귀옥 이다현 이민욱 이상학 이상혁 이상현
이성현 이세미 이수지 이은혜 이준우 이중열 인유진 임채현 장성구 전혜연 정다빈 정다솜 정연이 정영준
정종훈 조아라 조희균 조희우 주수인 최효주 필그림교회 한별 한봄 한인철 한지희

치과대학병원(발전기부금, 사회사업후원금) 김경란 웰컴저축은행㈜ 이능현 이민정 정복영 주시보

연세암병원(발전기부금, 완화의료센터 후원금)

감사합니다 강민경 강선영 강성희 강정석 고사환 고아라 권미정 김경동 김기세 김동준 김명아 김상은
김성재 김세연 김은하 김재민 김창무 김창호 김채현 김태은 김희진 박건우 박다현 박라희 박서율, 오은주
박선진 박세열 박수진 박지호 박한기 박효정 서영주 서예준 설영도 손지수 송경화 송현주 신성관 신유희
신현심 신현진 안은선 양근혁 양희진 오지영 유선미 윤명희 이병훈 이상순 이선경 이선율 이세진 이소라
이안나 이일학 이주은 이진희 이현주 임정열 임현성 장승희 장윤경 장혜영 전지연 전혜영 정다미 정인혜
정해철 정형윤 정효식 조윤경 조재덕 주민경 진우진 창천교회 최모나 최선재 최혜진 최효원 한성준 한수현
한순희 한진우 홍지서 홍지완 황은경 황은지 황의동 황정아

재활병원(발전기부금, 장애인의료재활후원금, 장애인사회재활후원금)

김동수 김소연 김태연 나리지 박창일 성애성구사 유준영 유춘희 육근미 윤도웅 이대욱 이원미 이현재
장성구 재활학교 교직원 정연수 진경련

심장혈관병원(발전기부금, 사회사업후원금)

(주)디자인나눔 강문보 고영규 고종석 구본환 구철회 권순연 권지은 기독교장로회 서울 동노회소속 밀알교회
김명옥 김미진 김범석 김봉섭 김봉애 김영선 김형수 김혜빈 노환규 박우현 박제원 박혜원 배명일 배한수
서금순 서이준 소사라 송태선 심영재 심영훈 아름다운가게 안형이 오효례 유철안 윤인자 은영표 이수민
이순생 이승일 이재한 임희철 장호열 정지연 조영은 주미진 진순자 최순익 하재옥 함순의 홍성석 홍윤서

안과병원(발전기부금) 수이57아뜰리에

어린이병원(발전기부금, 사회사업후원금) #BTSARMY JHUNGJENNYJINHEE KEIKO OTSUKA
LAFAGE MATHILDE JULIETTE PAULETTE Mari C. MC CRARY LEANDRE 강솔 강솜귤 강수정 강아란
강유진 강윤 강은영 강지수 강지은 강효영 고광현 고민영 고보현 고옥선 고은아 고은정 곽지은 구세희
구소연 구정화 국다슬 권계령 권석임 권원좌 권초희 김가윤 김경림 김경민 김경혜 김경희 김나연 김다혜
김도연 김동순 김명현 김명훈 김미강 김미란 김미미 김미자 김미혜 김민경 김민서 김민정 김민주 김보건
김보영 김선신 김세진 김소연 김수민 김수연 김수진 김승현 김영경 김영림 김영하 김유식 김유진 김윤희
김은경 김은아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장미 김재원 김재훈 김주예 김준연 김준희 김지영 김지은 김지혜
김지희 김진녕 김진아 김진영 김진주 김초록 김한순 김혁수 김현미 김현승 김현영 김현원 김현주 김혜림
김홍랑 김희진 나군호 나지혜 남지영 노경량 노연동 노예진 류소연 류창욱 마윤미 문경림 문다겸 문수빈
문유리 문혜영 박경리 박경희 박금희 박나린 박미선 박미숙 박서영 박선주 박세리 박소영 박소현 박신희
박영경 박은혜 박자영 박재임 박정식 박정영 박정현 박주은 박준한 박준형 박지수 박지현 박지혜 박진주
박진희 박초연 박태이 박현선 박현아 박현정 박현진 박혜란 박혜진 방윤지 배가희 배민영 배희숙 백승준
백주현 백지혜 백한솔 변희영 상의민 서아람 서예린 서유진 서은해 서하나 서혜선 설영도 성인경 성현진
성희경 송민경 송보배 송정민 송정아 송진영 송하연 송현주 송혜민 송희영 순지연 슈가 팬 신경희 신수정
신아영 신예원 신우진 신우철 신전수 신채현 신혜영 신화정 심은진 심화선 안다래 안별님 안예은 안초현
양다현 양명 양민서 양소담 양혜지 엄가영 엄미화 여정희 여진 연지혜 오army 오경진 오민아 오연
오예진 오인경 오지섭 오혜민 옥예은 옥해연 우연희 우영옥 원소정 원태경 원현정 유경휘 유민아 유성혜
유소영 유승진 유인경 유혁재 유현덕 유현숙 유효정 육성해 윤성준 윤성희 윤소연 윤예화 윤은경 윤은주
윤지아 윤호영 이경미 이경진 이근희 이기주 이다감 이동현 이미령 이미선 이미희 이상은 이선미 이선율
이선화 이소영 이소현 이송연 이수정 이슬기 이시온 이시우 이신애 이영은 이영주 이영화 이영훈 이예슬
이용연 이용희 이원철 이유화 이윤정 이은미 이은영 이은재 이은정 이은혜 이은화 이재라 이정녀 이종남
이종헌 이주희 이지민 이지연 이지영 이진아 이채현 이태은 이하람 이한별 이현아 이현정 이혜민 이혜빈
이혜지 임미정 임선민 임성민 임수연 임수정 임승연 임은영 임정은 임지선 임청욱, 민상훈 장경화 장수연
장은진 장지원 전가영 전성희 전은혜 정다예 정묘영 정미회 정병호 정서린 정서연 정선 정성경 정성희
정순영 정아랑 정연희 정윤복 정윤실 정은정 정은주 정재희 정주연 정지원 정지은 정하루 정하율 정현숙
정현주 정혜련 정혜민 정효길 조미란 조민영 조민주 조수경 조승아 조아윤 조운형 조은용 조인혜 주연숙
주영희 즐겁소 지임경 지현정 진기영 진선령 진주현 차은경 채명주 채아윤 천서영 최가영 최다운 최다희
최모경 최미덕 최아름 최여진 최영금 최우심 최유나 최유리 최유진 최윤서 최윤지 최은예 최재원 최정원
최지수 최지현 최진아 최현슬 최혜영 추지희 추채린 하현주 하희정 한경구 한미경 한보람 한성민 한성희
한세희 한수지 한시우 한아름 한언정 한지우 한진미 함정선 허정연 홍서영 홍선혜 홍수미 홍수연 홍원홍
홍윤희 홍은아 홍은호 홍지연 홍혜영 황광희 황덕현 황도연 황성균 황윤희 황지은

원목실 헌금 및 후원금

곽수산나 곽호철 권미정 금기창 김수 김영삼 대한예수교장로회 남대문교회 석정호
연세의료원 노동조합 염산교회 이기용 이향규 창천교회 최수연

의료선교센터(발전기부금, 선교사 후원금, 의료선교후원금, 의료선교 교육기금)

(재)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교회 (재)대한예수교장로회 일산운정벧엘교회유지재단 (재)성서침례교회 (주)피트크루
강남동산교회 강남비전교회 강신혜 강엽 강정현 개봉교회 고양동산교회 고일환 곽수산나
광주겨자씨교회 권경금 김나희 김명진 김미경(박현중) 김상동 김성순 김성헌 김세주 김세헌 김수경 김영기
김용배 김용수 김정호 김하일 김한규 김현영 김혜미 김호택 나오미 난곡제일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늘푸른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민교회 동신교회 박윤선 박희정 백종욱
베이직처치 분당지구촌교회 사랑의교회 상당교회 새벽교회(담임목사 이승영) 샘물교회
서울교회 서울남교회 서울은현교회 서울제일교회 선한목자교회 세계로교회 손기혁
송탄중앙침례교회 수색감리교회 수영로세계선교회 신생교회 신용산교회 신의철
신일교회(선교부) 신전수 신촌중앙침례교회 아현감리교회 안강중앙교회 연대인사팀 연동세선
연희교회 염준섭 예능교회선교 예장영광교회 오지영 온사랑교회 와우리교회 왕성교회
우면동교회 우원기 원정훈 유수진 유인석 윤경애 윤병종 윤유상 은진원 은평광은교회 이경덕 이규래
이수정 이신행 이일학 이주희 이한성 인천성산교회 임성빈 임준열 임하성 장병식 장석교회 장성구
장위제일교회 전명재 전주아름다운교회 전주온누리선교회 전지현 정승원 정지영 정혜원 조은철
주내힘교회 주안교회 즐거운교회 천안장로교회 천정범 최덕환 최은창 최훈영 충신교회
평안교회 평촌새중앙교회 하재옥목사 행복나눔교회 허규하 허승곤 홍원기 홍주의

간호대, 방글라데시와 교육·연구 역량 강화

보건부 공무원 등 연수
다카대 총장단도 방문



간호대학이 방글라데시 정부 기관, 대학 등과 협력을 강화한다.

지난달 27일 소망관에서는 '방글라데시 보건부 공무원 초청 역량강화 연수' 개회식이 열렸다. 연수에는 방글라데시 보건가족복지부(MoHFW) 공무원 15명과 간호대 박사과정 유학생 3명 등이 참여했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방글라데시 국립간호대학원 교육연구 역량강화사업 일환으로, 국립간호대학원에 방글라데시 최초 간호학 박사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목표로 삼고있다. 국립간호대학원은 2016년 간호대가 KOICA 지원으로 개원한 방글라데시 최초 간호학 석사 대학원이다.

28일에는 방글라데시 A. B. M. 오바이둘 이슬람 총장 등 다카대학교 총장단이 간호대를 방문했다. 다카대학교는 국립간호대학원에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모대학(Mother University)으로, 박사과정 운영 핵심 협력 기관이다.

총장단은 간호대학·쉴즈 시뮬레이션센터 투어에 이어 이현경 학장과 면담했다. 이현경 학장은 간호대의 연구중심 교육·연구 역량을 소개했으며, 다카대학교 측은 공학·데이터과학 등 다양한 전공 교수진으로 구성된 연구 역량을 소개하고 양국 간 교육·연구 협력 발전을 기원했다.

치대병원–하노이 국립구강병원, 학술 교류



치과대학병원은 최근 베트남 하노이 국립구강병원 대표단을 맞아 턱관절 질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학술 교류와 협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쩐 까오 빈(Tran Cao Binh) 하노이 국립구강병원장을 비롯한 대표단 7명이 참석했으며, 박원서 치대병원장과 교수진이 함께했다.

대표단은 쉐플리글로벌클리닉과 구강악안면외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내과, 통합치의학과 등 주요 진료 현장을 둘러보며 치대병원 시설과 진료체계를 살펴봤다. 이어 열린 턱관절 학술 미팅에서는 전국진 치대병원 부원장이 턱관절 질환 영상 진단을, 박진후 교수(구강악안면외과학)가 턱관절강 세정술과 하악골 상행지 수직골절단술을, 장민 교수(구강내과학)가 턱관절장애 비수술적 치료법을 각각 소개했다. 양 기관 의료진은 턱관절 질환 진단과 수술·비수술 치료에 대한 임상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치료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학술 미팅 이후에는 교류 협력 간담회를 통해 양 기관 의료·교육 현황 공유와 향후 학술 및 임상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연세 글로벌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임상 연구 전략 세미나 개최

YONSEI 글로벌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이하 실증지원센터)가 지난달 29일 코엑스에서 의료기기 산업 관계자 및 연구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디지털 의료기기의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임상연구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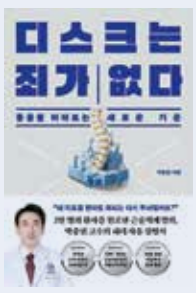
세미나는 실증지원센터와 ㈜메디팁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후원해, 국내 디지털 의료기기 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과 해외 임상연구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실증지원센터와 메디팁은 지난해 12월 의료기기 실증연구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후, 3~4월 실증전문 교육 과정 운영에 이어 이번 세미나를 함께 주최하는 등 의료기기 실증연구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구성욱 실증지원센터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디지털 의료기기의 주요 국가별 규제 대응 방안부터 중국과 유럽 등 거점 시장을 타깃으로 한 다국가 임상시험 실제 사례와 운영 전략이 집중 조명됐다. 발표 이후에는 참가자들과 연자 간 질의응답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논의했다.

구성욱 센터장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디지털 의료기기 기업들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경험하는 규제 장벽과 임상 연구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이번 세미나가 유용한 이정표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글로벌 실증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스크는 죄가 없다

저자 | 의대 박중현 교수(강남 재활의학과)



의대 박중현 교수(강남 재활의학과)가 신간 '디스크는 죄가 없다'를 출간했다. 근육·근막·인대·관절·디스크·신경이 함께 작동하는 척추 시스템 관점에서 통증과 회복을 설명한 책이다.

박 교수는 진료실에서 반복해서 마주한 "치료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왜 다시 아픈가요?"라는 질문을 책 출발점으로 삼았다. 영상에 나타난 구조적 이상과 실제 통증 관계를 짚고, 통증을 줄이는 치료와 함께 움직임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를 풀어냈다.

책 특징은 척추를 '공격자·방어자·피해자'의 관계로 설명한다는 점이다. 반복되는 하중과 생활 습관을 '공격', 이를 견디고 조절하는 근육과 코어 기능을 '방어', 부담이 쌓여 통증과 손상이 나타나는 조직을 '피해자'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아픈 부위뿐 아니라 어떤 부담이 반복되고, 이를 감당할 기능은 충분한지 함께 살펴보자는 것이다.

통증에 대한 두려움도 다룬다. '디스크가 나왔다'는 말에 허리가 망가졌다고 생각하거나, 움직이면 더 손상될까 봐 활동을 줄이는 환자 경험을 소개한다. 신경계 과민 반응과 공포·회피가 통증 지속에 관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일상 언어와 사례, 다양한 일러스트를 활용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척추통증지도'는 여러 조직과 신경계 관계를 한눈에 보여줘, 독자가 자신의 증상을 이해하고 의료진과 소통할 기준을 갖도록 했다.

[RHK/300쪽/20,000원]

기고 | 김선규(연출/의대 94년 졸/연세화산외과의원 원장)

30여년 만에 또 다시 무대와 조명에 빠지다-연극 '그게 아닌데' 공연을 마치고

지난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2주에 걸쳐 연극 '그게 아닌데' 공연을 했습니다.

졸업한 지 30년을 넘나드는 늙다리 OB들이 모여 1년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완성도도 높아 연출로서 정말 뿌듯한 공연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관객의 반응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티켓 예매가 시작된 지 불과 3일 만에 5회 공연 모두 매진 됐습니다.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신입생 시절 멋모르고 왠지 멋져 보여서 시작한 연극이 어느덧 제 대학생활 전부였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세란극회 출신들 모두 졸업하고 한번씩 모일 때마다 늘 OB 연극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OB 공연이 드디어 이뤄진 것입니다.

사실 연출로서 마주한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바쁜 진료 일정과 일상 속에서 시간을 쪼개어 연극을 준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대를 향한 열정 하나만은 30년 전 청춘일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 동문들이 삶의 현장에서 진료와 연극을 위한 연습, 기획뿐 아니라 분장과 극장 도우미로 참여해줘 이번 무대가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은 우리 동문들의 압도적인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실입니다. 70명이 넘는 세란극회 OB 동문들께서 마음을 모아 보내주신 후원은 우리가 무대 위에 서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객석을 채워주신 다양한 세대의 연세의대 가족 얼굴은 연출로서 잊지 못할 장관이었습니다. 세란극회 OB 동문들과 가족, 지인들은 물론이고,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세란극회 YB 후배들과 연세의대 재학생 100여명이 공연장을 찾아 선배의 무대에 아낌없는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35년 전 세란극회 지도교수님이셨던 지훈상 전 의료원장님과 윤동섭 연세대학교 총장님께서도 직접 찾아와 무대 위 배우들과 스태프들의 손을 잡고 따뜻한 격려를 건네주셨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가슴 깊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작품 '그게 아닌데'는 타인과 관계에서 생기는 선입견과 소통 부재 문제를 유쾌하고 위트 있게 풀어낸 연극입니다. 관객들에게 타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깊은 울림을 전달하고 싶었던 우리 마음이 객석까지 잘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30여 년 만에 다시 올린 이번 무대는 단순한 일회성 연극을 넘어, 세대를 뛰어넘는 동문들 열정과 끈끈한 협력이 만들어낸 참으로 특별한 기적이자 축제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를 돌보는 일상으로 돌아간 지금도, 가슴 한구석에는 무대 위에서 함께 나누었던 뜨거운 호흡과 박수 소리가 여전히 선명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준 모든 동문과 청춘의 무대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연출로서 고개 숙여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The show must go on"